삶은 대몽 속 이야기
〈大夢〉



新 불교사자성어

⑳ 몽중설몽(夢中說夢)

몽중설몽(夢中說夢)은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한다' 는 뜻이다. 〈대반야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일반적으로는 '허황된 이야기', '두서없이 하는 말', 또는 '무엇을 말하는지 종잡을 수 없음' 을 이를 때 쓰인다. 불교 용어가 널리 애용되다 보니 단장취의(斷章取義, 뜻 전체를 취한 것이 아니고 단편적, 부분적으로 취한 것)하여 일반어처럼 된 것이다.

다음은 〈대반야경〉의 내용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보았던 갖가지 현상들은 모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꿈도 실재하는 것이 아닌데, 꿈속의 일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상이 〈대반야경〉 596권에 나오는 법문이다. 그 의미는 꿈이란 허망하여 의존하거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말이 변천하여 '헛소리', '횡설수설', '당치도 않는 말(胡言亂語)' 등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생 100년을 '대몽(大夢, 큰 꿈)' 이라고 한다. 멋있는 말이다. 하룻밤의 꿈만 꿈이 아니고 '인생도 꿈이라는 것' 이다. 꿈이고 소설이다. 중단편 소설이 아니고 장편소설이다.

우리의 삶은 대몽(大夢)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거나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꿈인지도 모르고 아옹다옹,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간다. 별것도 아닌 소소한 일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 조물주가 보면 웃을 노릇이다.

'꿈' 에 대해서라면 유명한 장주(莊周, 장자)의 '호접몽(胡蝶夢) 이야기' 가 있다.

"지난밤 꿈속에서 장주가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녔는데, 얼마나 즐거웠던지 자신이 '장주' 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불현듯 잠(꿈)에서 깨어 보니 호랑나비가 아니라, 틀림없는 인간 장주였다. 도대체 자신이 꿈에 호랑나비가 된 것인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로 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을 장주는 '물화(物化)' 라고 하였는데, 물화란 호접몽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의 구별이나 구분은 무의미하므로 물아일체(物我一體), 만물일여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그대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대이므로 옳고 그름(是是非非)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또 그것은 각자의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호접몽과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의 쟁점은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 는 관점에서 싸운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면 그것은 입장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정쟁(政爭)도, 조선시대 4대 사화(士禍)도 모두 '강한 자기주장' , '고집' 곧 '너는 나쁘고 그르며, 나는 옳다' 는 것 때문이었다. 그 속에는 고집과 집단이기주의, 권력 유지 목적이 깔려 있었다. 한 가정이나 형제간, 부부간의 다툼도 슬프지만 이에 지나지 않는다.

장자는 "지인무몽(至人無夢)"이라고 했다. 지인(至人,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잠을 자도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 허망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덕이 높은 사람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꿈을 꿀 때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악몽 속에서 헛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헛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가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인생 100년도 꿈이 아닐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윤창화 민족사 대표〉

"나무 위서 말은 쉽지만, 아래서는 어렵다"



격절록 강설

⑳ 제7칙 향엄수어(香嚴垂語)

[古則과 着語]

擧, 香嚴垂語云 (作什麼) "如人上樹 (還覺滿口含霜麼) 口銜樹枝 (撲落也) 手不攀枝 (便有恁麼人) 脚不踏枝 (奇怪) 樹下有人問西來意 (阿誰) 不對則違他所問 (莫道) 若對又喪身失命 (伏惟尚享) 正當恁麼時 作麼生即是" (香嚴又撲 落了也) 時有虎頭上座出云 "上樹即不問 未上樹 請和尚道" (東家人死 西家助哀) 香嚴呵呵大笑 (也是落他綣縝了也)

향엄지한(香嚴智閑, ?~898)이 대중에게 수어(垂語)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 [입 안 가득 서리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쳐서 떨어뜨려버려라.] 손은 나뭇가지를 잡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리는 나뭇가지를 밟지 않고 있는데 [기이하고 괴상하다!]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서래의(西來意)' 를 묻는다면 [누가?] (이때) 대답하지 않으면 물은 것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말하지 말라.] 만약 대답을 해도 역시 목숨을 잃게 된다. [삼가 흠향하소서.]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향엄이 또 치는구나. 떨어져버렸다.]

그때 호두(虎頭) 상좌가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청컨대 스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동쪽 집 사람이 죽었는데, 서쪽 집 사람이 슬퍼하는군.]

향엄이 가가대소(呵呵大笑)했다. [분명 저 올가미에 걸려들었다(함정에 빠졌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樹上道即易 樹下道即難 (旁出一枝) 老僧上樹也 致一問來" (險). 설두(雪竇)가 염(拈)해서 말했다.

"나무 위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나무 아래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곁가지 하나를 냈다.] 노승(老僧, 설두)이 나무에 올랐다, 자, 한 번 물어라." [험(險, 위험하다)!]

[評唱 1]

諸方老漢得箇見處 直是千般萬計 提起為人 更不囊藏. 被蓋立箇喻 令人易曉 却倒成難曉. 何故. 為慈悲深厚. 令人轉生情解 若是慈悲淺 却較些子.

제방의 노장들은 견처(見處)를 얻으면 바로 천 가지 만 가지로 사람들에게 제기했지, 결코 주머니 속에 감추지 않았다. 비유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닫도록 하였던 것인데, 도리어 거꾸로 깨닫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 같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자비심이 깊고 두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정해(情解, 분별지해)를 내게 하는 것이 만약 자비심이 얕은 것이라면 그래도 봐줄만 할 것이다.

只如香嚴垂語道 若論此事 如人上樹口銜樹枝. 這箇香嚴老婆心切 只這問. 你若纔生樹上樹下 對與不對處 轉生義路墮在常情 卒難透得. 若是頂門上具眼的 終不向對與不對處 作解會 未舉已前 先知落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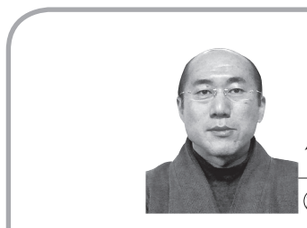
예를 들어, 향엄이 수어한 이 일을 만약 논한다면 마치 사람이 나무에 올라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향엄이 노파심이 간절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들이 만약 나무 위나 나무 아래,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의로(義路, 견해)를 일으킨다면 그럴수록 더욱 더 상식적인 도리(常情)에 떨어져 끝내 꿰뚫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수리(頂門)에 분명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끝내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곳에서 이치로 따져 알지(解會) 않고, 거론하기 이전에 먼저 낙처(落處, 핵심)를 알 것이다.

*본칙은 『무문관(無門關)』에서 향엄상수(香嚴上樹)라는 제목으로도 전한다.

*수어(垂語)란 색어(索語)와 같은 말로 스승이 제자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 위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⑳ 믿음 편 20

타인의 종교 인정해야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청룡영화상을 받은 배우 나문희 씨의 수상소감이다. 이 짧은 한 마디는 사람들에게 웃음뿐만 아니라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신앙도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독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곤 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강을 건너고 나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법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수단은 여럿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독선이자 집착일 뿐이다. 이는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교통편이 오직 버스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행기와 기차, 자동차 등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

신앙은 구원,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수단이다.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여럿이기 때문에 어느 신앙을 택할 것인가는 오직 개인의 취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적 신앙의 기본이다. 자신의 신앙만 옳다는 것은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뱃멀미가 심한 사람에게 배를 타야만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처럼 수단이 여럿인데도 자신의 신앙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만 알게 되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담을 여지(餘地)가 없게 된다. 종교적 독선과 편견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만 아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올바로 아는 일도 아니다. 일식(一識)이 무식(無識)보다 무섭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교 내에도 피안(彼岸)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정진하는 자력의 길이 있다. 이와는 달리 절대 타자의 위신력에 의지하는 타력의 길도 있다. 근본불교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지혜의 길을 택했다면, 대승불교는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비롯하여 지장신앙, 약사신앙 등 다양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었다. 구원을 향한 대중들의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이를 방편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 내의 다양한 신앙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 역시 내가 걷는 길만 옳다는 독선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 신앙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이의 욕구가 아니라 내 생각(生覺)에 바탕을 두고 걷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신앙은 잠자고 있던 나의 삶(生)을 깨우는(覺) 거룩한 행위다.

〈중용〉에는 공부하는 태도로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널리 배우고(博學) 세밀하게 질문하며(審問), 신중하게 생각하고(愼思) 분명하게 판단한(明辨) 후에 돈독하게 실천하라(篤行)는 뜻이다. 박학은 단순히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와 다른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독선과 맹신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다. 신앙도 널리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한 다음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적 신앙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열린 태도의 신앙을 지향한 인물이다. 신앙은 곧 선택이며, 내 선택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종교의 기본이다. 기본을 상실한 신앙은 결코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